

# 예수는 선한 목자

조 덕운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7-15, 흠정역

7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8 나보다 먼저 온 모든 자들은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풀을 얻으리라. 10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11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12 목자가 아닌 삿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헤치느니라. 13 삿군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삿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14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15 아버지께서 나를 알 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 1. 목양을 통한 하나님의 관점

이브가 아담에게 낳은 첫 두 아들들은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이었습니다. 인류 초기에 산업은 농업과 목축업이 대 본류를 이루었지만, 노아 시대의 대 홍수 이후로는 그 외에도 수렵, 건축, 야금, 군사 등 여러 분야가 발전한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에집트로 내려갈 때에도 모두 목축업에 종사하였습니다. 탈애굽 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축업은 주요한 산업이었으며, 광야 생활 40 년 동안 이들은 목축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생활했던 아라비아 반도의 서북지방의 풍토는 오늘날처럼 황량하지 않고 초목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 목축업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 미디안 땅으로 갔을 때에 미디안 사람들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양 떼를 치게 되었고, 이드로의 아들들 역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명령한 제사 예식은 동물 제사를 위주로 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들이 충분한 목축업을 영위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축은 가장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고 제일 주요한 경제 활동이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양떼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그들의 목자로 여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유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두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양 떼로 여기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목자로 여기고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시편 77:20]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양 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시편 80:1] 오 요셉을 양 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주는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이여, 주는 빛을 비주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에 대한 이해가 밀접하였으므로 양 떼와 목자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매우 우둔하여서 자신이 갈바를 알지 못하고 특히 털이 많이 자라서 눈을 가리면 바로 앞만 볼 수 있게되니 반드시 목자가 떼를 인도하고, 개별 양들은 떼의 일부로서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풀을 먹음으로써 생존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소년 시절에 자기 아버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양떼를 치는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마리의 양과 목자로 다음과 같이 시편 23 편에서 표현하였습니다.

*[시편 23:1]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3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자신의 개인 신앙 생활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의지하고 그 사랑과 보호하심에 만족하는 생활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23 편은 자주 읽어서 도움이 될 좋은 시입니다.

## 2. 지도자들의 책무는 선한 목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양떼 같은 백성을 먹이고 돌보는 목자로 임명하셨음을 잘 알았고, 목자의 심령으로 백성들을 돌보려고 애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양 떼를 위하여 전쟁을 여러 번 수행하여 적들을 물리치고 나라의 경계를 확장시키며, 산업을 발달시켜 나라의 부를 증강시킴으로써 나중에 자기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때에 많은 양의 금을 남김으로써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미리 준비한 좋은 왕이었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사역이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신에 이어서 백성을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그는 자신이 했던 것처럼 이 회중의 목자가 될 사람을 구했습니다.

*[민수기 27:15] 모세가 주께 아뢰어 이르되, 16 주 곧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사, 17 그가 그들 앞에서 나가고 그들 앞에서 들어오게 하시며 또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고 또 데리고 들어오게 하소서. 그리하사 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라. 18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속에 그 영이 거하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께서서는 여호수아의 속에 목자의 영이 거함을 보시고 그를 새로운 백성의 지도자로 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나중에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을 세워 왕으로 만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한 것은 좋은 목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백성을 양 떼처럼 잘 인도하는 지도자의 덕목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사울 왕은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러 결점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것처럼 목자의 심령을 가진 좋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지도한

왕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대언자를 보내시어 좋은 목자의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셨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선한 목자의 모델을 들어 책망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1-2] 주가 말하노라. 내 초장의 양들을 떨하고 흩어버리는 목양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2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먹이는 목양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 떼를 흠으며 그들을 쫓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보라, 내가 너희의 악한 행위들에 대하여 너희를 징벌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에스겔 34:2-8] 사람의 아들이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대적하여 대언하고 또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목자들이 마땅히 양 떼를 먹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3 너희가 살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으며 먹이를 먹은 양들을 죽이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4 너희가 병든 것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픈 것을 고쳐 주지 아니하며 상한 것을 싸매 주지 아니하고 쫓겨난 것을 다시 데려오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폭력과 잔인함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5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졌으며, 흩어졌을 때에 들의 모든 짐승에게 먹이가 되었도다. 6 내 양들이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두루 떠돌아다녔으며 참으로 내 양 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며 아무도 그것들을 찾거나 찾으러 가지 아니하였도다. 7 그러므로 목자들아, 너희는 주의 말을 들을지어다. 8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 떼가 희생물이 되고 들의 모든 짐승에게 먹이가 되었으니 이는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로다. 내 목자들이 내 양 떼를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만 먹이고 내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 대하여 선한 목자의 심령을 갖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흠으며, 자기 살던 땅에서 쫓아내고 돌보지 않은 악한 행위들을 강하게 비판하시고 백성들의 처지를 한탄하셨습니다. 국가나 교회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첫째 책무는 '선한 목자'가 되어 목자의 심령으로 양 떼인 백성을 돌보고, 보호하며, 먹이고, 살피주어야 하는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국가 지도자나 목회자는 구약 시대와 동일한 책망과 징벌을 현세와 내세에 모두 받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독제자와 독제 체제는 모두 처참하게 멸망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내세운 사람들이 모두 선한 목자 되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내려 오신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는 참된 목자 왕이었던 다윗으로 상징되는 다윗의 후손이 되는 분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대언자 에스겔, 이사야 등을 통하여 예수님 오시기 수백년 전에 미리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전은 세상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의 왕으로 오실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34:22-24] 그러므로 내가 내 양 떼를 구원하여 다시는 그들이 먹이가 되지 않게 하고 또 내가 가축과 가축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23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고 그가 그들을 먹이게 하리니 그는 곧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24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서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이사야 40:10-11]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더불어 임하실 것이요, 그분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리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11 그분께서는 목자같이 자기 양 떼를 먹이시고 어린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리로다.

### 3. 예수의 초림 사역- 현대 목회자의 모델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는 재림 때에 취하실 큰 정치적 권력과 하늘의 능력을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시면서 선한 목자가 해야만 하는 소명, 즉 양 떼를 위해 자신의 몸을 바쳐야만 하는 소명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소명을 갈보리 언덕 위에서 이루심으로써 참된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목자 되시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의 소명을 대언자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53:6-8]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8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 줄 것인지 미리 선언하셨습니다.

[요한 10:11]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이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백성을 인도할 책임이 있었던 목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선한 목자에 대한 정의와 스스로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겠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실행했던 행동, 즉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쳤던 고귀한 실행적 모범에 대하여 읽고 있는 오늘날의 목회자들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양 떼를 돌보고 그들을 위해 여러분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놓을 헌신적 소명을 주님의 모범에 따라 실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2 천년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듣고도 아무 생각도 없이, "그건 당신이 선택한 길이고 나는 내 방식대로 할거야"라고 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남기신 선한 목자의 정의와 그 정의를 몸소 실천하신 모범은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참으로 커다란 도전이며, 우리도 그분처럼 선한 목자가 되도록 온 몸과 마음을 던지도록 강렬하게 밀어 주는 추진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21 세기의 목회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지침은 1 세기 때에 사도 베드로가 여러 교회의 장로들에게 하신 다음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베드로전서 5:1-4]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2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3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 떼에게 본이 되라. 4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목회자들이나 장로들이나 집사등 교회의 지도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이고, 감독하고, 본과 사랑으로 돌보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무는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하여 위임하신 것이며, 그분은 하늘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 위임된 책무를 수행하는가 내려다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께서는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의 양을 먹이라”고 세 번이나 말씀 하셨습니다. 목회자 스스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귀한 영적 자산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양 떼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회중더러 최소한 하루 30 분 기도하라고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 스스로 최소한 하루에 한 시간을 무릎 꿇고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 하늘의 양식과 생명수 되는 말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나의 양을 먹이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의식주에 대한 모든 걱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양을 잘 먹이는 본분을 충실히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양 떼에게 참된 선한 목자의 본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선한 목자로 자신을 양 떼를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장’, 즉 모든 목자들의 우두머리이시고 여러분은 그 목자장의 모범에 참여하는 목자 군대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목자장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은 영광스런 관을 쓰게 되고 하나님 왕국 안에서 빛나는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 **4. 주님 재림시에 받을 선한 목자의 상**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의 환란 시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주님께서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천년동안 지속될 왕국을 수립할 것을 이야기 합니다 [누가 21:25-27; 마태 24: 29-30; 마가 13:24-27; 계시록 19:11 – 20:6]. 그런데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의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왕국으로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면 성자 하나님에 걸맞는 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묘사되기 보다는 28 번이나 ‘어린 양’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 5:9-14; 7:9-17; 더군다나 아직도 죽임 당한 흔적을 가지고 계신 어린양으로서 보좌의 한 가운데 계시는 것일까요?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어린양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일을 모두 완성하셨는데 왜 목자장이 아니고 죽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늘에 계시는 것일까요? 나에게서는 이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승리하셨으니까 왕중의 왕으로서 빛나는 면류관을 쓰시고 하늘의

영광을 누릴 때가 아닙니까? 왜 주님은 아직도 그 처참하게 죽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지니고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다시 계시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남을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즉 양 떼의 목자장으로 남으실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끝날까지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은 어린 양의 보혈로 의롭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 위해서는 어린 양 되신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7:14; 12:11]. 그리고 영원토록 주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어린 양으로 새 예루살렘 안에 계심으로 성전의 역할을 담당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1:22].

그러나, 종말 후에 올 세상을 다스릴 왕중의 왕으로 오실 때에는 영광의 금관을 쓰시고 하늘의 큰 권능과 영광을 지니고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14:14]. 허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주님을 온 세상의 주라고 시인할 것입니다 [이사야 45:23]. 세상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그분 앞에 나와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분의 권위에 굴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로서 충실하게 양 떼를 먹인 자신의 종들을 칭찬 하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치하와 보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45-47]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 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46 그의 주인이 올 때에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47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주님께서서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 때에 하늘의 양식을 먹이되 그 목양의 사역을 신실하고 지혜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처한 목회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여야 “신실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일지 주님께서서 지도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즈음처럼 코비드-19 역병의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신실함과 지혜로움과 하늘의 상을 받을 기대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힘 주실 것입니다. 아멘.